본당 소식

♣ **오늘의 전례**

-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들을 기리며, 순교자들의 피로 우리를 복음의 빛 안으로 불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신앙 선조들의 순교 신앙을 본받아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합시다.

♣ 2026년 본당의 날 추석 합동위령미사 안내

- 일시 : 09월 27일 (주일), 11시
- 미사 후 전 신자 식사 있습니다.
  (장소 : OPERA HARU, Haru Asian Fusion Restaurant)
- 각 구역별로 오늘(20일)까지 참석 인원을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6 이탈리아 한인문화체육대회

- 일시 : 10월 3일(토), 10:00~18.00
- 장소 : Sport Vilage Assago (Via Giuseppe Di Vittorio, scn 20090 Assago MI)
- 참석 인원 조사 : 오늘 (20일)까지

♣ 2026 대구대교구 재유럽 사제모임

- 9월 28일(월) ~ 10월 1일(목), 라스 팔마스

♣ **주일 학교 개학일 안내**

- 개학일 : 9월 20일
- 안수식 및 축복식 : 미사 중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52.90€ • 교무금 000.00€

전례 성가

입당 : 287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봉헌 : 239 (거룩한 어머니)
성체 : 153 (오소서 주 예수여)
168 (오묘하온 성체)
파견 : 283 (순교자 찬가)

전례 봉사

이번 주일(9월 20일)	다음 주일(9월 27일)
1독서: 현상휘 루치아	1독서: 안희관 요셉
2독서: 윤미자 모니카	2독서: 이경진 카타리나
복 사: 변가인 헬레나 / 안태오 마태오	복 사: 안태리 소화데레사 / 김사빈 엠마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뇨

2026년 9월 20일

(홍)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본기도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
이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선택하시어 오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죽기까지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1독서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3,1-9)
1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2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3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4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5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맞갖은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6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7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8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9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31ㄴ-39)
형제 여러분, 31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2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3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34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35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36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37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
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39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23-26)
그때에 23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야 한다. 24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거룩한 순교 정신으로 이끌어 주시어, 어떠한 어려움
에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며,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2.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스스로 이 땅에 신앙을 들여와 주님 말씀과 가르침을 따랐던 한국
교회의 순교자들을 굽어살피시어, 박해의 칼날 앞에서도 당당히 신앙을 증언한 그들
이 세계 교회에서 신앙의 모범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3.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교회로 부르신 예비 신자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진리에 대한 믿음과 배움의 열정으로 세례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
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4.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가정을 살펴 주시어, 믿음, 희망, 사랑의 삼덕을 굳건히 지키고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주님의 참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거룩한 순교자들의 축제를 지내며
용사들의 음식으로 힘을 얻고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도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교회 안에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인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287

최민순 작사
이문근 작곡

힘있고 점잖게

성모

거룩한 어머니 239

보통 속도로

김진균

153 오소서 주 예수여

최민순 작사
이문근 편곡

283 순교자 찬가

성인

최민순 작사
이문근 작곡